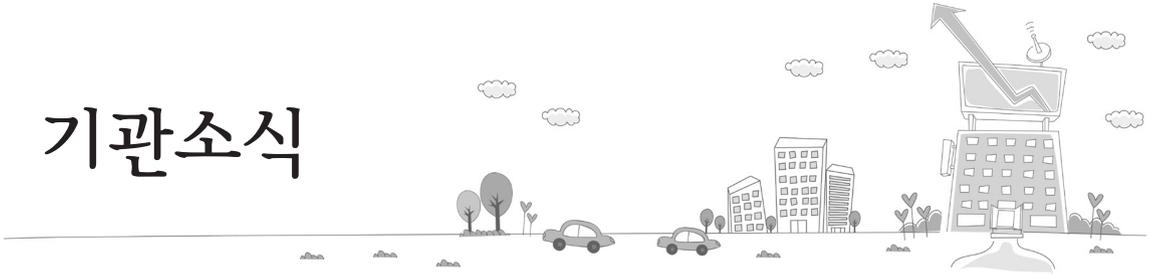


기관소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인을 위한 가축보험, 새롭게 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1일부터 축산농가의 부담경감과 경영안정을 위해 '2014년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불법수령 등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주는 한편, 축산농가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면서 각종 재해나 사고로부터 농가보장은 한층 강화하는 등 상품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소 가축재해공제금 불법수령' 수사결과의 후속대책으로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은 지점(낙축협)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실태점검시 지적 사항과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가축재해보험금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하여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14.1.23)'를 통해 확정·시행중에 있다.

둘째, 가축재해보험금 불법수령 등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보험목적물을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하는데 실제 발생된 제반비용(견인, 운

송, 도축 등), 즉 사고가축 '잔존물 처리비용'을 손해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젖소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유량(乳量)이 감소되어 도태(긴급도축)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젖소 불법도축을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 긴급도축 : 부상(경추 및 사지골절, 탈구), 난상, 산욕마비, 젖소 유량감소 (젖소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

셋째,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요율을 표준화하고, 보험료 분할납부제를 도입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간다. 지금까지 보험사별 보험요율 기준이 달라 가입농가의 혼선을 초래하던 점을 개선하여 보험요율체계를 표준화(참조 순보험요율 적용)한다. 축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축종 평균 위험보험료의 5.1%가량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험료 분할납부제*를 도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은 줄고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

*** '14.4월 현재 : NH농협손해보험(인가요율), LIG컨소시움(재보험사 협의요율)**

*** 농가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 보험가입 농가 신청 시 2회 분납 가능**

넷째, 보험사의 착오로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할 보험금에 적용하는 지급이자율을 개선한다. 보험사 잘못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율에 대해 너무 낮게 적용하던 보험사의 '정기예금이율' 관행을 보험개발원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개선하여 보험계약자 권익 보장을 강화한다(4월 1일부터)

* '14. 4월 적용이율(보험개발원) : 장기손해보험 등 보험계약대출이율 5.35%, 일반손해보험 등 정기예금이율 2.6%

다섯째, 각종 보험사기에 대비한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년부터 보험사별 '보험사고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보험사고 위험 예방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험관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보험금 불법수령 사고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상호 협력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보험사고 발생 횟수 등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 관리, 보험금 불법수령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고관리체계 구축

또한, 보험사별 본점 및 지점에 대한 실태점검을 정례화하여 가축공제사업 운영상 과오를 반면 교사로 삼아 가축보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 정기점검 연 2회(56월, 1011월), 특별점검 수시(평균 손해를 등 고려)

여섯째, 보험사고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험사기 관련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 비정상적

인 관행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소 손해평가 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 소의 수사사 진단 및 검안서 작성 시 공수의사 또는 타 지역 수의사를 활용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심사 시 사고가족에 대한 보험금 지급 증빙서류 등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금 불법수령 관련자 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해당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취소나 수수료 감액환수 조치 등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보험사고 목적물 도축(도축검사증명서, 기립불능확인서) 및 생산이력(등급판정확인서), 목적물 현장사진 첨부(3면 이상) 등 심사 강화

마지막으로, 가축재해보험 개선사항을 약관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간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연재해 발생이 거의 없고, 소 가축보험 사기사건으로 축산 농가들의 가입의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그간 제도개선사항과 지난 2월 강원경북지역 폭설피해 보험금 지급사례 등에 대하여 보험사와 지자체 관계자 등에 대한 홍보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각종 가축재해보험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보험 제도가 재해나 사고를 입은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축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베트남에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건립 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4~’17년까지 총 28억 원을 들여 베트남에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이하, 질병센터)’ 건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12.5월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ODA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2년 「검역 및 수의발전 국가 중장기전략(2012~2020)」에 따라 질병센터 건립을 추진하였고, 이에 우리나라에 동 사업에 대한 공식 지원요청을 해와 농식품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14년도 ODA 사업으로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원조**

이 사업의 실제 추진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한국농어촌공사로 검역본부는 베트남 질병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베트남 연구원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진단 및 방역기술을 전수하게 되며, 농어촌공사는 베트남 질병센터 건립과 기자재 등 하드웨어 인프라를 지원하게 된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3.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우리정부를 대표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백종호)이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동물위생국장(Pham Van Dong)과 협의의사록(ROD, Record of Discussions)을 체결하였다.

협의의사록에는 동 사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지원 내용 뿐만 아니라, 베트남 질병센터를 활용해 한국-베트남간 가축질병분야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대표로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검역본부 백종호 연구부장은 “동 사업

은 베트남의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질병 진단기술과 방역기술을 향상시켜 우리나라로의 질병 유입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히는 한편, “우리가 베트남 질병센터를 해외 거점 연구시설로 활용하면 신종 질병에 대한 선행 연구도 가능해져 고위험 가축전염병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동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표시, 쉽게 읽고 활용해요! ‘건강이의 영양표시 여행’ 동영상 제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영양표시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이해도와 활용도가 낮아 영양표시를 쉽게 이해하고 식품 선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이의 영양표시 여행’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13년 식약처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 (활용률) 47.2%(전체 응답자 중 85% 영양표시를 인지, 그중 활용 비율 55.5%에 불과)
- (이해도) 어려움 29.7%, 보통 46.2%, 쉬움 24.1%

이번 동영상은 ‘1회 제공량, 총 제공량’과 ‘%영양소기준치’를 비롯해서 영양표시를 읽는 방법과 활용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영양표시는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관련된 영양성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영양표시만 꼼꼼히 확인해도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줄 있으며, 영양표시를 쉽게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이 먹는 식품의 양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확인한다. '총 제공량'은 한포장의 전체 중량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 크기에 따라 '1회 제공량'과 같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1회 제공량'이 모여 '총 제공량'을 구성할 수도 있다. 특히,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총 제공량은 얼마큼인지, 자신은 몇 회의 제공량을 먹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식품 포장에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모두 표시하고 있음

둘째, 체중 관리를 위하여 열량 표시를 확인한다. '1회 제공량 당' 열량에 자신이 섭취한 '1회 제공량' 횟수를 곱하여 총 섭취 열량을 알 수 있다.

셋째,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대비 어느 정도를 섭취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영양소기준치'를 확인한다. '%영양소기준치'도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열량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 % 영양소기준치 : 영양소의 하루 필요량 대비 식품 1회 제공량당 영양소의 양

(예 : 지방 18%이란 해당 제품의 '1회 제공량'에는 하루 필요지방량의 18%가 있음)

비만, 과체중이 걱정되는 경우 열량과 당함량을, 혈압이 걱정되는 경우 나트륨 함량과 '%영양소기준치'를, 심혈관질환이 걱정되는 경우 트랜스지방함량과 포화지방·콜레스테롤의 '%영양소기준치'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의 첫걸음이라 강조하면서, 이번 교육·홍보 자료가 많이 활용되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영양표시 정보」 사이트(www.mfds.go.kr/nutrition) > 영양표시 > 쉽게 배우는 영양표시)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영양표시 쉽게 읽는 노하우!

1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보세요.

2 내가 섭취한 총 열량은?

3 '%영양소기준치'를 확인하세요.

영양 성분		
1회 제공량 2봉 (80g)		
총 2회 제공량 4봉 (160g)		
1회 제공량 당 함량	%영양소 기준치	
열량	285kcal	
탄수화물	46g	14%
당류	23g	
단백질	5g	9%
지방	9g	18%
포화지방	3g	20%
트랜스지방	2g	
콜레스테롤	80mg	27%
나트륨	150mg	8%
칼슘	140mg	20%
철	2mg	17%
비타민C	2mg	2%

* %영양소 기준치 :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현장 중심의 축산연구 활성화 촉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연구개발결과의 축산현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현장명예연구관과 지도관 1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각 분야별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명예연구관과 지도관은 앞으로 2년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축산 기술 발굴과 개발에 협력하고 연구사업의 심의, 자문, 평가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또한 개발된 축산 기술의 현장 접목을 통한 활용도 제고, 현장 간담회,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에서 한우 45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계림농장 김학수 대표는 현장명예지도관으로 활동하며 한우 번식·계획 교배 및 사양관리 기술 등 한우 농가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축산 개발 기술의 농가 보급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부서별로 위촉된 현장명예 연구·지도관은 농촌진흥사업 축산관련 기술집, 홍보물과 당면현안, 기술정보 등을 인터넷과 문자로 제공받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송용섭 기술지원과장은 “현장 중심 축산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73명으로 운영하던 현장 명예 연구·지도관들을 축종별·분야별 현장 종사자 중심으로 112명으로 확대 위촉하게 됐다.”라며 “현장명예연구·지도관과 협력을 강화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된 기술은 다시 현장에 보급해 축산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안양만안경찰서와 업무협약(MOU) 체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규담, 이하 인증원)은 4월 1일(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관내 사법기관인 안양만안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중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한 양 기관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인증원과 만안경찰서는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을 위한 축산식품의 위해요소 정보를 공유하고 HACCP적용 작업장의 불량식품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자 역할을 공동 수행하며, 불량식품 유통경로에 대한 단속·수사에 신속한 정보 협조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왕민 경찰서장은 “먹을거리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 강국을 구현하기 위해 인증원과 손을 잡았다”며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먹을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에도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규담 인증원장은 이날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협약으로 경찰의 수사력과 인증원의 전문성을 상호 융합함으로써 식품안전 강국 구현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농식품 수출정보 119콜센터”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농식품 수출애로 상담실」 산하 「농식품 수출정보 119 콜센터」를 4월 7일 양재동 aT센터에 설치했다. 「농식품 수출정보 119 콜센터」는 수출정보 이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통합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수출 정보제공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One-Stop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설되었다.

이에, 공사는 농식품 수출, 식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고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상담 및 수출애로사항을 자문한다. 또한, 정보 코디네이터를 상시 운영하여 KATI.NET에 기 구축되어 있는 수출 관련 정보를 선별, 재가공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수출농가, 수출업체 등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콜센터에서는 신규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외 정보 미니조사를 실시하여 10일 이내에 제공함으로써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도움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119 콜센터’를 통한 정보이용방법은 KATI(www.kati.net) 상담게시판, 콜센터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하고 있으며 대표 전화는 02-6300-1119 또는 1670-1191이며,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농협중앙회

‘바른 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 발대식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4월 16일(수)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바른 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의 공식적인 시작을 선포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세대별(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대표 200여명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농협중앙회 김태영 부회장, 고향주 부모님 김순희 회장 및 전국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바른 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은 잘못된 식생활로 건강을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우리 농산물 중심의 바른 식생활로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민 캠페인이다.

텃밭가꾸기, 채소·과일 균형섭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침밥 먹기, 축산물 저지방부위 소비촉진 등 전 세대를 아우르며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 발대식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캠페인 슬로건 선포식’과 세대별 대표를 선정하여 바른 식생활에 대한 실천사항을 만들어 발표하는 ‘내가 생각하는 바른 식생활 발언대’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대표 슬로건인 「함께해요 바른식생활, 누려가요 건강백세」는 지난해 11월부터 1월 17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식생활 캠페인 공모전’에서 슬로건 부문 대상을 받은 작품이다. 또한, 캠페인 송 가사 부문에서는 「푸드 오감(五感)

:: 기관소식

만족」이 주제와 잘 어울리고 쉽게 풀어 쓴 가사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어 캠페인 송으로 만들어져 캠페인 발대식 당일 첫 공개되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바른 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바른 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은 식생활만 제대로 해도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국민 건강 실천 캠페인”이라며 “농협에서 전개중인 食사랑農사랑운동 실천캠페인으로 함께 추진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